

# 2野 법인세 인상 입장차...공조 미지수

### 더민주 “대기업 22%→25% 상향...김동철안도 참고”

### 국민의당 “묻지마 공조 보다 세출구조 면밀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대기업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해 야권이 꾸준히 추진했지만 여권과 경제계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국민의당과 공조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법인세 인상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6일 더민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법인세를 입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린다는 것이다.

더민주 측은 야권의 공조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연간 소득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더민주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야권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앞서 세출 구조를 면밀히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묻지마 공조’보다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명확한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지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를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최근 과도한 인상 문제가 대두된 실손의료보험료를 공공의 합의로 적정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해오고 있으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

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천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보험회사들이 앞다퉈 보험료를 20%대 이상 올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회사의 영업비용 상승,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지금까지 보험금/거부된 보험료)이 오를 전망이다. 그러자 서민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20% 가량은 보험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점 등이 문제시됐다.

이에 국민의당은 보험료 부담정규와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실손의료보험의 인상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잠룡들 ‘대권 기지개’

### 野 안희정·김부겸 강연·포럼 활동...손학규, 박지원 독대



손학규 전 고문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에 참석했다. 안 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각 정당 당이 틀을 잡고 내년 대선에 대해 이야기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야당 진영 내에서 어떻게 내년

야권 대선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집거 중인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난날 ‘새판짜기론’을 꺼내들면서 사실상 정계복귀를 예고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불편 투수론’으로 대권 도전 여지를 둔 가운데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내년 대선 무대에 뛰어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특히 손 전 고문과 안 지사, 김 의원이 현충일 연휴를 맞아 일제히 대외활동에 나서 시선을 끌었다.

김 의원은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 국민속으로’ 주최 토크 콘서트의 강연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권·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이 국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생각은 없다”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6월 중에는 어떤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도 같은 날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거버넌스 리더스 조찬 포럼’

대선을 준비하고 어떤 후보가 적합할지 대한 논의를 할 때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6일 “도정에 총살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이에 따라 입장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고문은 연휴 전날인 지난 3일 밤 목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독대했다. 두 사람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만영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이만영 가요제’에 함께 참석할 뒤 커피숍에서 따로 만나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과 안 지사, 손 전 고문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 앞서 발진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대권 구도가 더민주 문제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간의 양강 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틈새를 만들어 놓으려는 시도라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與 ‘50대 기수’ 남경필·원희룡·오세훈 회동...유승민 특강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오세훈 전 시장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잠룡들이 서서히 수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며 차기 대권 판도가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국회 인근의 한 자리에 초청했다. 혁신비대위 출범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듣겠다는 게 취지였다. 당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원내대표가 중앙 정치 무대와는 떨어진 ‘도상’ 바깥의 장수들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셈이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이후 단박에 여권 차기 유력 주자로 등극하자 이번에는 50대의 젊고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친박과 비박계 사이에서 ‘깁박’이라는 정 원내대표로서는 원조 쏘신파로 통했

던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과 만나면서 기존 계파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백 상태나 다름없던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군이 점차 외연을 넓히며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총선 때 탈당한 유승민 의원은 최근 대학 특강으로 정치 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게 흡사 대선 도전 선언과도 같았다. 유 의원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50대 기수론의 각축전은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충일 추념식 여야 총집결

여야 지도부는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 일제히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추념식에는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당 대표자 격인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처음으로 외부공식행사에 참석, 야당 지도부와 처음 인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당 지도부 자격으로 당 대표들의 좌석 뒷줄에 착석했다.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도 추념식에 참석했다.

추념 행사가 시작되자 즉 복부 증인 가슴 검 탐라트 이승기씨의 선창에 맞춰 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종군탑을 향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순서에 맞춰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 수 있다”며 “국가 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5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심과 단합으로 나라를 지켜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김종인 현충일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승, 새누리 혁신비대위 합류...광주·전남 현안 창구 될까

### 이정현 의원과 함께 활약 기대

지난주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에 원외인사로 합류한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류하면서 여권의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결의 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이후 여권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광주·전남지역 민원창구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비중은 더욱 커져 이 의원이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으로 정 전 처장이 포함되면서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게 됐다.

정 전 처장은 완도 출신으로 지난해 4·29 광주 서구를 재·보궐선거에서 전정배 의원에겐 패배했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지역과 여권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 전 처장은 새누리당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기간이긴 하지만,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나 2019 수명연수권대회 예산지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우 노선 조기 확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역

을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혁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고향인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목포 출신으로 1호 법안으로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비례)과 광주 출신 신보라 의원 역시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년 노하우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79 6백만원 최저가 5억5천7백원 초등학교와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2중주택 2층상가 대지 705 건물 600 감정가 8억1천8백 최저가 3억6천6백
- ★ 광주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인근 도로변 2층상가 대지 289 건물 388 감정가 3억5천9백 최저가3억5천9백 현 식당상업중
- ★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역인근 5층속박시설 대지298 건물1206 감정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4천9백 (45%)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상성전자인근 공장 대지 3293 거물 1495 감정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정가1216백 최저가 85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도로변 3층상가 대지 691 건물989 감정가 8억8천3백 최저가 4억9천4백만원 병의원적합
-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해안가 5층모텔 대지 1,449㎡ 건물 1,258㎡ 감정가 9억5천7백 최저가 2억7천4백만원

###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감정이 915백만원 최저가 915백만원
- ★ 전남 장성군 학림리 전 1574 침단3지구인근 도로변 감정이 8천1백만원 최저가 8천1백만원 주말농장 최적합
-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도로변 담 1032 감정가 2천만원 최저가 2천만원 전정중용 전원주택적합

### 수익형 일반매매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매매 58 (조정가)
-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월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델유형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매매27억(13억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 (28억포함),수익성월8천정도

###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4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5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3, 27)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422㎡6층 모델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48천 추가3억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진방3개 매매 63천 대출 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편성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20년경력 010-6211-4585 조여사 / 상가 및 전원주택부지 파실분 문의 환영(실수요자 다수확보) 062-714-2251